



임란웅치전적지 보존회는 13일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창렬사에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선열들을 선양하는 추모제를 거행했다.

임란웅치전적지 순국선열 추모

웅치전 대첩 승격 성역화 필요성 대두

임란웅치전적지 보존회(이사장 손석기)는 13일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창렬사에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선열들을 선양하는 추모제를 거행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이항로 군수, 신갑수 군의장, 각 기관단체장 및 보존회원, 관련 후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웅치전적지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관군과 의병 연합군이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 전주로 향하는 왜군과 벌였던 웅치전투의 현장이다. 웅치에서의 격렬한 저항에 의해 왜군은 끝내 전주 점령을 포기하고 퇴각하게 되는데, 이는 호남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실은 7년간 계속된 임진왜란 속 웅치전투의 가치와 위상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안타까워하던 웅치전적지지 보

존회는 자발적으로 매년 양력 8월 13일을 추모일로 정하고 선열들의 넋을 기려오고 있다. 손석기 이사장은 추모사에서 "1592년 7월 8일과 9일 조선군과 왜군이 혈전을 벌였던 웅치전투의 핵심지역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대임이 밝혀졌다"며 "웅치전을 대첩으로 승격시키고 역사 현장을 성역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군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0명이 지난 9일과 10일 서울대학교와 한양대, 숙명여대, 전북대학교를 찾아 꿈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 고등학생 80명 대학탐방 성료

서울대·한양대 등 방문 입학 설명·멘토링 진행

무주군은 무주고와 설천고, 안성고 무풍고 등 4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0명이 지난 9일과 10일 서울대학교와 한양대, 숙명여대, 전북대학교를 찾아 꿈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대학탐방 프로그램은 멘토링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학습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으로, 해마다 무주군 교육발전협의회(회장 강만기)가 주관해 호응을 얻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첫 날 한양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를 방문해 대학 입학 설명과 멘토링교육을 받고 캠퍼스를 둘러봤으며, 10일에는 서

울대학교 재학생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과 공부 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학교에서는 전북대 봉사단들과 함께 캠퍼스를 돌아보면서 대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동아리,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을 보니까 부럽더라"며 "이번에 와서 이야기들은 대로 열심히 해서 멋진 대학생활 꼭 해보고 싶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교육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날이 더운데도 하나라도 더 보고 더 듣기 위한 학생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다"라며 "이번 기회로 동기부여가 좀 돼서 어렵고 힘든 공부가 재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 경로당 뇌졸중 예방 교육

진안군보건소(소장 성용경)는 심뇌혈관질환 인지도 개선과 자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뇌졸중 예방 방문건강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군은 지역 특성상 열악한 보건 의료지원의 접근성,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보건소는 전북광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해 읍면 경로당 중 10곳을 선정해 주민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말까지 찾아가는 경로당 뇌졸중 방문건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과 사후교육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 뇌졸중의 주요 증상 및 대처방법, 예방·치료·관리 방법 등을 교육한다.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 뇌졸중의 주요 증상 및 대처방법, 예방·치료·관리와 함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 맞춤형 건강상담까지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뇌졸중의 위험성과 대처방법 인지를 통해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은 물론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도 및 구급차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 정기재물조사 담당자 교육

장수군은 13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물품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춰 건설한 재무구조를 관리하기 위해 실과소 및 읍면 물품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재물조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재물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기재물조사 지침과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처리요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전자태그(RFID)발행 및 태그 부착방법 등의 실무내용도 전달해 원활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정기재물조사 기간 중 관리부서가 누락되거나 상이한 물품을 조정할 후 부서별 재물조사를 실시해 수리가 가능한 물품은 정비해 사용하고 비활용품은 양여 또는 관리전환하며,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재물조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하며, 재물조정기간에 실제 부족품 및 초과품 등을 물품현황자료에 반영해 정확한 물품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가공제품 FDA등록 지원 신청하세요"

장수군, 24일까지 식품클러스터사업단에서 접수

장수군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가공제품 FDA등록 및 수출패키지 제작 지원사업은 (사)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에서 신청·접수받는다

관내 가공제품 FDA등록 및 수출패키지 제작 지원사업은 관료를 다각화하고 다변화함으로써 농업경제체의 소득 증대와 가공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사)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1,000만원(보조 50%, 자담 50%)이다. 사업내용은 관내 법인 및 개인 사업자로 수출에 관심이 있고 기존 가공제품 패키지를 리뉴얼해 수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

로 수출에 적합한 상품디자인과 수출패키지 제작비용을 지원해준다.

농업기술센터 서정원 소장은 "현지에 맞는 수출패키지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가공제품을 다양화시키고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2017년부터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장수사과를 수출하는데 일조해 왔으며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현지에서 관내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성황리에 마친바 있다. 또한 올해 몽골, 말레이시아, 미국 현지 매장에 오미자주, 한과, 사과즙 등 관내 가공제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무주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평균 889명)이 대상이다.

방문을 통한 1:1 면접조사로 진행되며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신체계측(혈압, 키, 몸무게), 삶의 질, 의료이용 등 총 18개 영역 201개 항목을 조사한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김선영 방문보건 담당은 "그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사업들과 캠페인들이 우리군민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결과가 기대된다"라며 "결과에 맞춰 우리군 보건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기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구슬땀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

장수군은 지난 1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장수읍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및 인근 상가 및 집지역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수군청과 전라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청소년의 보호의식 확산 및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다.

또한,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등의 위반행위, 19세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문구 부착 여



부 확인 등의 계도·점검 활동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및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설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